

♣ KOEMA 소식 ♣

제조물책임(PL)법 관련 의견 건의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99. 7. 29 (목) 진흥회 회의실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 될 경우 중전기기 제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대중공업(주) 등 회원사 담당자들과 동법 시행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의견을 종합, 입법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 피해자 범위의 구체화
- 무과실책임의 손해범위 지정
- 면책사유의 준수기준 및 범위 현실화
- 소멸시효 기간 세분화 및 적용시한 일률적 적용 배제
- 법 시행시기 3년 연기 등이다.

'99. 3차 산업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마감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99년도 전기부문 산 업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제3차 자 금융자지원 신청안내 공고에 따라 지난 8. 13까지 해당업체의 융자신청을 접수하였다. 접수현황은 4개업체에서 32억원을 신청하였

으며, 진흥회에서는 '99년도 전기부문 배정액 100억원중 1·2차 지원 잔액분 2.670백만원 에 대하여 자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신청업체의 개발사업내용을 심의, 융자대상사 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조사개시 관련회의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인도 상무부가 주인 도주재 한국대사관에 지난 7. 1 공식적으로 광섬유 반덤핑에 대한 자료를 조사중에 있다 고 통보함에 따라 관련업체 및 산업자원부와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관련회의를 개최하 였다. 이 회의에서 대한전선, LG전선 등 관련 업체들은 인도정부가 요구한 제출시한(8. 10) 까지 답변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밝혀 산자부를 통해 자료제출시한의 연장(8. 31)을 요청하고 해당업체간의 공식 대변창구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답변으로 금번의 반덤핑제소 철회 또는 조사계획을 취소시키는 등 공동대응 하기로 하였다.

관서전력 해외조달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서 지난 7. 4~7. 11 「대일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을 구성, 방일중 수출상담회를 가졌던 “관서전력주식회사”에서는 전력기자재의 해외조달 확대와 관련, 1차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외조달 대상품목인 전선(Cable)의 구체적인 스펙을 제시, 해외 공급업체를 모집(인터넷을 통한 견적서 제출 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관서전력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 드리으며, 참고로 홈페이지상에는 전선에 대한 견적서 제출기한이 8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으나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정도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동사의 해외조달대상품목과 관련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도 동시에 알려 드리니 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관서전력 전선조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epco.co.jp/kepa/kakaku.htm> (日文)
- http://www.kepco.co.jp/kepa/kakaku_e.htm (英文)